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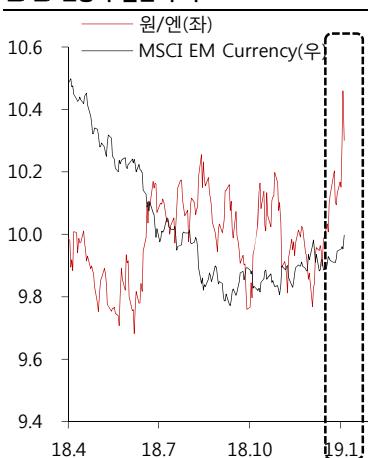
Issue Comment

- ✓ 지난 한달 자동차섹터 수익률 시장/글로벌 PEER 대비 양호
- ✓ 본업개선 기대감과 함께 환율/실적에서 상대적 안정성 부각
- ✓ 시장 불확실성 하에서 시장대비 양호한 성과 지속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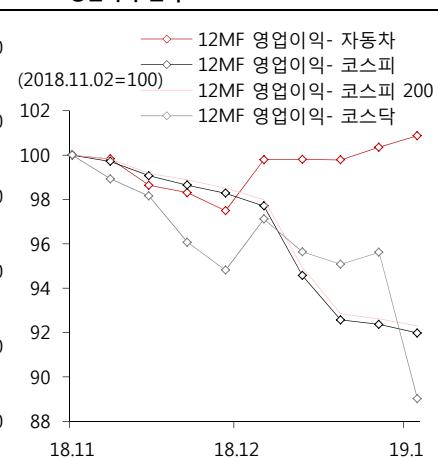
[자동차] 상대적 안정성의 부각 - 환율, 실적

- 지난 한 달간 한국 자동차섹터의 수익률은 +8.9%를 기록하며 KOSPI -4.9% 대비 아웃퍼폼. MSCI Auto Index는 -5.2%로 글로벌 Peer 대비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
- 본업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12 월 양호했던 글로벌 출하 및 미국 판매, 낮아진 인센티브, 새롭게 출시된 펠리세이드의 높은 사전예약 등이 긍정적인 요인.. 또한 신년사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뿐만 경쟁사 대비 부진했던 미래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중요. 정의선 수석부회장 주재 하에 16년 이후 3년만에 그룹 사무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
- 주가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본업과 함께 외부 환경변화도 꼽을 수 있음. 당시에서는 환율과 실적추정치 변화에 주목
- 먼저 환율은 원/달러 변동성은 제한적이었지만, 원/엔은 약세로 진행되며 국내업체에 우호적으로 작용. 일본 경쟁업체인 도요타, 혼다, 닛산의 지난 1개월 수익률이 -8.2%, -9.7%, -12.6%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 18년 1분기 이후 비우호적이었던 신흥국 환율도 최근 반등
- 실적 추정치의 변화도 중요. 주요 업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11월부터 현재까지 실적 추정치 변화를 보면,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추정치는 KOSPI, KOSDAQ 이 큰 폭으로 하향된 반면, 자동차는 소폭 상향되며 안정성 부각
- 결론적으로 최근 자동차섹터의 아웃퍼폼은 본업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환율과 실적추정 등의 변화에서 상대적 안정성이 부각된 결과라 는 판단. 시장 불확실성 하에서 시장대비 양호한 성과 지속 기대

원/엔 신흥국 환율 추이



12MF 영업이익 변화



2년간 주요 주체별 누적 순매수



자료: Bloomberg, Quantwise,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